

광양제철 독자 설계 '4열연공장' 준공

가열로 등 포스코건설·ICT 등 그룹사 공동 설비 고급 자동차 강판·고기능 강재 시장서 경쟁력 강화

포스코(POSCO)가 그동안 해외 엔지니어링사에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순수 자력 엔지니어링 기술로 '광양 4열연공장'을 건설, 지난 31일 준공식을 가졌다.

포스코는 지난 2007년 세계최초로 '파이버스 공법'의 상업화에 성공, 새로운 제철기술을 독자 완성한 데 이어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 생산까지 자력으로 열연공장을 완공함으로써 명실공히 글로벌 철강회사로서 입지를 굳혔다.

권오준 회장은 "제작사와 시공사 등 이번 프로젝트 참여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4열연 설비의 성공적인 준공이 가능했다"며 "고급 자동차강판과 고기능 강재

시장에서 포스코의 주도적인 포지션을 지속 유지하고 강화해 고객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하우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 4열연공장의 하드웨어 핵심설비인 가열로와 압연설비, 권취설비 등은 포스코 건설이 초기 단계부터 주요 그룹사들과 함께 맡았고, 소프트웨어 해당설비인 제어 및 전기설비는 포스코ICT에서 전담했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와 그룹사가 열연공장을 자력으로 설계하고 건설함으로써 100% 독자적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완성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광양=백영진기자 pyj4079@



포스코 권오준(가운데) 회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광양제철 4열연공장' 준공식을 갖고 있다.



전남농업박물관 내일 전통혼례식

길놀이·풍물놀이 등 볼거리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4일 오전 11시 쌀박물관 전통 혼례청에서 전통혼례식을 치른다. 이번 전통 혼례식이 주인공인 신랑 마이클 씨와 신부 김신숙 씨다.

농업박물관은 혼례 당일 쌀박물관 먹거리 장터 앞에 혼례청을 차려놓고 고증을 통해 확인된 옛 방식을 토대로 혼례예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축하객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문화사업진흥회의 길놀이, 풍물놀이 등 흥겨운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다.

자일을 친 혼례청에 촛대와 나무기러기, 갖가지 음식이 차려진 혼례상이 마련되고, 풍물패의 '길놀이' 공연이 펼쳐지면서 청사초롱을 든 '등롱꾼'의 뒤를 이어 말에 올라 탄 신랑이 혼례청으로 행진한 데 이어 연지 끈지를 바른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혼례청으로 입장하면 혼례식이 시작된다. 이어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존안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절을 주고받는 '교배례'에 이어 신랑 신부가 청실홍실로 묶은 표주박과 표주박에 든 술을 서로 교환하여 마셔 하나가 된다는 의례인 '합근례', '성혼선포', '닭 날리기', '성혼행진' 순으로 진행된다.문의(전남도 농업박물관 학예연구실 061-462-2796)

차일을 친 혼례청에 촛대와 나무기러기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권익위 7일 무안서 이동신문고 운영

"고충 민원 있으면 와서 상담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이다. 이번 이동 신문고에서는 법률 상담을 비롯해 재정 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다. 또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사항, 불만사항, 건의사항 등도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동 신문고가 무안군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익산시 모현동 '사랑으로 부영 2차 아파트' 임대 분양

84㎡ 824세대 내년 10월 입주

(주)동광주택이 익산시 모현동 배산 택지개발지구의 '사랑으로 부영 2차 아파트'를 임대분양중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사랑으로 부영 2차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7~23층 10개 동 규모로 총 824세대(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분양가격은 임대보증금 9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이며, 전세가격은 1억 7000만원에 공급된다. 입주는 2015년 10월부터 가능하다.

이곳은 교육여건과 휴식·여가공간 등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자랑한다.

단지 입구의 익산 시립 모현 도서관과 함께 고현초, 이리북중, 이리고, 원광여중·고, 남성중·고 등의 우수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배산 지구내 이리남중 이전 (2016년 예정) 및 초등학교 1개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또한 원광대와 전북대 익산캠퍼스 등도 가깝다.

또한 익산시청과 경찰서, 우체국 등 주요 관공서와 대학병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단지내 대규모 공원과 인근 배산 체육공원, 익산 배산공원 등 풍부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익산시 서남부 지역에 속한 배산 택지개발지구는 인근 KTX익산역 복합 환승센터와 함께 신(新) 주거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종합 의료과학 산업단지, 익산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수혜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23번·27번 국도로 전주, 군산, 김제 등 인근 주요 도시까지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고, KTX익산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수도권 등으로 이동이 쉬우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추고 있다. 분양문의(익산 모텔하우스 063-832-2181~2,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기자 노트

나주, 실질적 관광정책 마련해야

"나주의 미래는 관광이 좌우한다." 분명 맞는 말이다. 나주는 '문화재 천국'이다. 지정 문화재만 무려 129개(국가지정 36, 도 지정 55, 나주 향토문화유산 38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국보 295호인 '나주 신촌리 금동관'도 포함돼 있다.

이러다 보니 나주시가 영산강이라는 천혜의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문화재에 매몰돼 근사한 관광행정으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리 영산강이라는 좋은 '관광 인프라'가 있으면 뭐하나. 이를 상품으로 만들고, 판을 벌여야만 관광객들이 찾아들 것 아닌가? 말로만 관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소극적인 관광 행정을 펼치고 있는 나주시와 전문성이 결여된 담당 공무원들, 이들의 생각들이 맞아떨어지다 보니 한 발짝도 진전없는 '나주 관광'이 되고 있다.

일례로 시청앞 사거리에 '완사천(浣紗泉)'이 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과 정화왕후(莊和王后) 오씨 부인의 인연이 깃든 샘이다. 이곳은 나주에서 현존하는 역사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물이 평지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보니 비가 오면 주변 빗물이 우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 수년 전부터 지적돼왔지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또 입간판 하나 없어 외지인들이 찾기도 힘들다.

흔히 나주는 '테마'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축제하나 없는 곳으로 전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까리는 얼마든지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나름대로 정비된 영산강이야말로 문화재 못지않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보여주기 식의 관광행정이 아닌 나주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역(逆)발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chjung@kwangju.co.kr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일을 다시 한번 기립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음.10.3) 우리의 개국일은 개천절과 일본의 국경일인 명치절이 겹치기때문에 한국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적 울분을 갖게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의거이며,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남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회해 봅시다.

- | | | | | | |
|---------|----------|-----------|--------|---------------|--------------|
| 목포교육지원청 |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세한대학교 | 초당대학교 | 신안교육지원청 |
| | 목포가톨릭대학교 | 동아인재대학 | 목포과학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 한국학원 목포시총연합회 |